



## 제62장 주므 아

메디나에서 게시된 11절로 이슬람법의 일면을 다루면서 그 가운데서도 금요 합동예배의 규범을 언급하면서 믿는 신도들에 대한 의무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장은 최후의 선지자 무함마드를 선지자로 보내어 암흑과 방황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고 인간사회의 병을 치료하는 메시지를 보낸 이야기를 시작으로, 하나님의 율법에서 벗어난 유대인들을 비유하사 책들을 등에 짊어지고 다니는 당나귀에 비유하고 금요예배에 대한 규범, 예배시간을 알리는 아잔 및 이까마가 울리면 상품판매 및 거래행위를 중단하라고 경고하면서 본 장을 끝맺고 있다.

본 장이 주므아(모이는 것 또는 금요예배)라고 불리우게 된 배경은 본 장 10절에 기인하는 것으로 본다. “믿는 사람들이여! 금요일 예배의 아잔이 들릴 때면 서둘러 하나님을 염원하고 거래를 중단하라 너희가 알고 있다면 그것이 너희를 위해 복이 되니라”라는 절에서 기인한 것으로 본다.

### 제 62 장

####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하늘과 대지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미하나니 그분은 왕이시요 성스러우시며 위대하시고 지혜로우시니라

2. 하나님이 그들 백성중 무학자인 무함마드를<sup>1)</sup> 한 선지자로 보내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sup>2)</sup> 낭송하고 그들을 청결케<sup>3)</sup> 하며 그 성서와 지혜를<sup>4)</sup> 가르치도록 하였나니 실로 이전의 그들은 방황하고 있었노라

3. 아직 이르지 아니한 그밖의 백성에게도<sup>1)</sup> 유익하게 하셨나니 실로 하나님은 권능과 지혜로 충만하심이라

4.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분은 그분이 원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위대한 은혜의 주님이시라

5. 구약의 율법을 받아 그것을 지키지 아니한 그들을<sup>1)</sup> 비유하사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يَسْمُؤُذُهُ مَا فِي السَّمٰوٰتِ وَمَا فِي الْاَرْضِ الْمَلِكِ الْقَدُوْسِ  
الْعَزِيْزِ الْحَكِيْمِ ①

هُوَ الَّذِي بَعَثَ فِي الْاٰمِيْنَ رَسُوْلًا مِّنْهُمْ يَتْلُو آٰيٰتِ الْكِتٰبِ وَيُزَكِّيهِمْ  
وَيُعَلِّمُهُمُ الْكِتٰبَ وَالْحِكْمَةَ وَلَمَّا كٰثَرُوْا مِنْ قَبْلِ اَنْ يَّصٰلِحَ قَوْمِيْنَ ②

وَاَنْزَلْنَآ مِنْهُمْ مَّآلَ الْيَحْتٰوِيْمِ وَهُوَ الْعَزِيْزُ الْحَكِيْمُ ③

ذٰلِكَ فَضْلُ اللّٰهِ يُؤْتِيْهِ مَن يَّشَآءُ وَاللّٰهُ ذُو الْفَضْلِ الْعَظِيْمِ ④

مَثَلُ الَّذِيْنَ هَمَلُوْا التَّوْرَةَ ثُمَّ لَمْ يَجْعَلُوْهَا كِتٰبًا يَّحْمِلُوْنَ ⑤

2-1) 읽지도 못하고 쓸 수도 없었던 그 시대의 아랍인들을 “움미”라고 하였으며 그래서 그들 사회에는 “움미야”(무학)라는 용어가 잘 알려져 있다. 선지자 무함마드도 그 당시의 아랍 사람들을 표현할 때, “우리는 아직 배우지 아니한 백성들로 쓰지도 아니하고 계산도 아니하도다”라고 말한 것이 하디쓰로 전하여 지고 있다.  
2) 꾸란  
3) 믿음으로 마음을 순결케 하는 것  
4) 꾸란과 하디쓰  
3-1) 부활의 날까지 이슬람에 귀의할 모든 인류. 「싸위」는 그 시대에 믿음을 가졌던 백성 및 그들 이후에 올 모든 백성으로 무함마드에게 계시된 꾸란은 그 시대에 있었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활의 날까지 올 모든 백성들에게 계시된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다(하쉬야 알 싸위 알라 알 잘라라인 204/4). 또한 “무자히드”는 아랍백성 외에 선지자를 인정한 모든 외국인이라고 말하고 있다(무크타바르 이브누 까씨르 498/3).  
5-1) 유대인들

책들을 씹어지고 다니는 당나귀와<sup>2)</sup> 같다 하였거늘 사악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들과 같으니라 실로 하나님은 사악한 백성들을 인도하지 아니 하시니라

6. 일러가로되 유대인들이여 너희가 주장하듯 너희가 다른 백성 위에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자라면<sup>1)</sup> 너희가 진실이라 할 때<sup>2)</sup> 죽음을 기원해 보라

7. 그러나 그들은 이전에 그들의 손들이 저지른 행위로<sup>1)</sup> 말미암아 죽음을 기원하지 못하니라 실로 하나님은 사악한 자들을 알고 계시니라

8. 일러가로되 너희가 피하려 한 죽음이 실로 너희를 덮치니라 그때 너희는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께 보내어지매 그분은 너희에게 너희가 행하였던 모든 사실을 말하여 주시리라

9. 믿는 사람들이여 금요일 예배의 아잔이 들릴 때면 서둘러<sup>1)</sup> 하

أَسْفَاؤًا بِئْسَ مَثَلُ الْقَوْمِ الَّذِينَ كَذَّبُوا بِآيَاتِ اللَّهِ وَاللَّهُ لَا يَهْدِي الْقَوْمَ الظَّالِمِينَ ⑥

قُلْ يَا أَيُّهَا الَّذِينَ هَادُوا إِنْ زَعَمْتُمْ أَنِّي أَوْلِيَاءُ لِلَّهِ مِن دُونِ النَّاسِ فَتَمَتَّعُوا الْمَوْتَ إِنْ كُنْتُمْ صَادِقِينَ ⑦

وَلَا يَمَّمُ صُلَيْمَةَ ابْنَةَ أَيْمَانَ وَمَا كَفَرْنَا بِهِ قَدْرُ الْعِلْمِ إِنَّ الظَّالِمِينَ ⑧

قُلْ إِنَّ الْمَوْتَ الَّذِي تَفِرُّونَ مِنْهُ فَإِنَّهُ مُلْفِيكُمْ ثُمَّ تُرَدُّونَ إِلَىٰ عِلِّيِّ الْعَالِيِّ وَالشَّهَادَةُ قَائِمَةٌ بِمَا كُنتُمْ تَعْمَلُونَ ⑨

يَا أَيُّهَا الَّذِينَ آمَنُوا إِذَا دُعِيَ لِلصَّلَاةِ مِن يَوْمِ الْجُمُعَةِ

2) 구약의 율법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한 것은 책을 씹어지고 다니는 당나귀처럼 성서를 씹어지고는 다니나 아무 효용이 없어 그 책들이 유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에게는 무거운 짐이 될 뿐이라고 「꾸르투비」는 비유하고 있다.

6-1)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그분의 총애를 받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하나님께 있는 내세는 자기를 만을 위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유대인이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들 하자 하나님께서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계시를 내려 그들이 거짓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8권 op. cit, p.52).

2) 제2장 94~96절 참조

7-1) 불신하고 오만하며 선지자 무함마드를 거역했던 그들의 행위

9-1) 싸이 : 달려가지 아니하고 차분히 걸어가는 것이라고(알타쓰힐 리움툼 알탄질 119/4) 풀이되고 있다. 또한 하디쓰에서도, “예배를 행할 때 차분히 걸어오라. 차분히 걷는 너희에는 평안함이 있느니라”라고 전하여 지고 하산은 예배를 드리려 올 때 평안하고 침착하게 오되 마음과 의도와 두려움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나눔을 염원하고 거래를 중단두라<sup>2)</sup>  
너희가 알고 있다면 그것이 너희  
를 위해 복이 되리라

10. 예배가 끝났을 때 대지에 분  
산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염원하라<sup>1)</sup> 그리하면 너  
희가 번성하리라

11. 그러나 거래와 어떤 오락을  
보면 그대를 두고서 떠나는 자들  
이 있나니 일러가로되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오락이나 거래보다  
나은 것이라 하여라 실로 하나님  
은 가장 훌륭한 양식의 수여자이  
시니라<sup>1)</sup>

فَاسْأَلِيْ ذِكْرَ اللّٰهِ وَذُرُوْا بَلِيْعَةَ ذٰلِكَمْ خَيْرَ لِّكُمْ اِنْ  
كُنْتُمْ تَعْلَمُوْنَ ۝

فَاِذَا قُضِيَتْ الصَّلٰوةُ فَانْتَشِرُوْا فِى الْاَرْضِ وَابْتَغُوْا مِنْ فَضْلِ  
اللّٰهِ وَاذْكُرُوْا اللّٰهَ كَثِيْرًا لَّعَلَّكُمْ تُفْلِحُوْنَ ۝

وَإِذَا رَأَوْا تِجَارَةً أَوْ لَهْوًا لَّيُنْفِضُوْا إِلَيْهَا وَيُذَكِّرُوْا قَائِمًا  
قُلْ مَا عِنْدَ اللّٰهِ خَيْرٌ مِنَ الْكُهْرِ وَمِنَ التِّجَارَةِ وَاللّٰهُ  
خَيْرُ الرَّازِقِيْنَ ۝

2) 금요 합동예배를 알리는 아잔 소리가 들리면 금요예배의 설교(쿠트바)를 경청하고 예배를 근행하기 위해 하던 일들 즉 상거래 행위를 멈추라는 교훈이다.

10-1) 하나님을 염원하는 것은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며 그분께 순종하는 자는 그분을 염원하는 자라. 그러나 그분께 순종하지 아니한 자 그가 하나님을 많이 찬미하였다 하여도 그는 하나님을 염원한 것이 아니라(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8권 op. cit, p.52).

11-1) 자베르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선지자 무함마드께서 설교단(민바르)에서 금요 합동예배를 인도하고 있을 때 대상이 왔다. 이때 선지자의 추종자들 중 자베르와 아부 바크르 그리고 오마르 등 12명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그 대상을 맞이하려 서둘러 나갔다. 이에 관하여 본절이 계시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Ibid. p.53).